

May 20 하나님의 뜻 구하기

• 마태복음 6:10

우리 신앙의 양태가 너무 하늘 중심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올리버 웬델 훈

스는 “어떤 이들은 너무 하늘만 생각해서 이 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이 세상의 고통을 참으며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날만 소망한다’는 말도 듣습니다. 세상은 잠시 지나는 거처이며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이라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지나치게 치우쳐 왜곡된 하늘 소망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

스는 영성을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기보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거룩을 이루어 가길 원했습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도 자신의 저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예수님이 자기 형제자매나 친구들과만 사시지 않고, 원수들에 둘러싸여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무질서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나라, 창조의 순리가 다시금 이 땅에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기도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 이 우리의 나라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스카이 제서니, 《예수님의 진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뜻을 알리시고, 특정한 상황들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갈망하며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실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성령’을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 ❶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 ❷ 세상을 등진 채 기도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까?